제 18회 경남서단 서학술발표회

사 경 (写 經)

2011

매현 박 순 하
I. 머리말 ................................................................................................................. 2

II. 사경(寫經) ........................................................................................................ 3
   1. 사경이란 무엇인가 ....................................................................................... 3
   2. 사경의 기원 ................................................................................................... 4
   3. 사경의 제작의식 ............................................................................................ 5
   4. 사경의 종류 .................................................................................................... 6
      가. 서사재료에 따른 종류 .............................................................................. 6
      나. 제본 형태에 따른 종류 ............................................................................ 8
      다. 발원자에 따른 종류 ............................................................................... 9
      라. 2차작인 사경 .......................................................................................... 10
      마. 문양 ........................................................................................................ 10
      바. 변상도(變相圖) ..................................................................................... 12
   5. 사경의 역사 ..................................................................................................... 13
      가. 통일신라시대 .......................................................................................... 13
      나. 고려시대 ................................................................................................... 15
      다. 조선시대 .................................................................................................. 17
   6. 사경에 주로 쓰인 서체(書體) ......................................................................... 19

III. 맺음말 ............................................................................................................ 22
Ⅰ. 머리말

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 조성(造成)을 시작한 지 천년이 되는 뜻 깊은 해를 맞이하였다. 불교경전(佛敎經典)의 총서라 불리는 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 이 대장경을 판각(板刻)하기 위해서는 판각하기 전에 일차적으로 사경(書寫)이 우선 되어야 한다. 그만큼 사경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사경이란 불교경전을 서사(書寫)하는 일이다.

우리나라 사경(書寫)은 삼국시대 불교가 전해지면서부터 시작되었고 현존하는 최고의 사경으로는 황룡사 연기법사(緣奇法師)가 그의 아버지와 중생(衆生)의 성불(成佛)을 위해 발원(發願)한 호암미술관에 소장(所藏)되어 있는 국보196호 신라백지묵서(新羅白紙墨書) 대방광불화엄경(大方光佛華嚴經 754~755년)이다. 그 이후에도 독특한 신념과 원력 그리고 각고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사경은 삼국시대, 고려, 조선,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歷史)와 함께 하는 전통문화예술(傳統文化藝術)의 한 장로 자리를 갖고 있다.

서예(書藝)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경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사경(寫經)

1. 사경이란 무엇인가

사전적(辭典的) 의미(意味)로는 불교(佛教)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인 경전을 후세에 전(傳)하거나 공양(供養)하기 위하여 경문(經文)을 붓으로 베끼는 일 또는 그 베끼 경문으로 나와 있다.

박상국님(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같은 대학원 불교학과에서 석사학위 취득, 현재 한국문화유산 연구원 원장)은 "사경(寫經)이란 불교경전(佛教經典)을 베껴 쓴 것을 말한다. 불교경전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문자화(文字化)한 것으로 불경(佛經), 경문(經文), 경(經)이라 한다. 그러나 사경이란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록한 경전 뿐만 아니라 부처님이 정한 교단의 규율인 율(律)과 경, 올을 조직적으로 논술한 논(論)까지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일러 경, 올, 논, 삼장(三藏)이라 한다. 다시 말하면 올을 필사한 것을 사율(寫律) 논을 필사한 것을 사론(寫論)이라 하지 않고 사경이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경이란 말은 경, 올, 논의 삼장, 곧 대장경, 일체경(一切經)이라 통칭되는 불교성전(佛教聖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된다."라고 하였다.

또한 외길 김경호님(시인이자 서예가이며 전통사경전문가, 현재 한국사경연구회 회장)은 "사경(寫經)의 사(寫)는 베끼다. 올겨놓다, 본뜨다, 그리다 등의 뜻을 지닌 글자이다. 그리고 일반적 의미로서의 경(經)은 법(法) 이
치(理致) 성인(聖人)이 지은 책(冊)이라는 뜻을 지닌 글자이다. 따라서 사경은 성인이 지은 책을 옮겨 쓰는 행위(行為)를 의미(意味) 한다.”라고 하였다.

이렇게 볼 때 사경이란 말 그대로 경전을 베껴 쓴 것은 모두 사경이라 할 수 있으며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말씀을 옮겨 쓴 것과 새긴 것 모두를 사경이라 할 수 있다.

2. 사경의 기원

사경의 시작은 석가모니의 설법(說法)을 석가의 제자들이 범어로 기록했던 때로부터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최초의 사경은 부처님이 열반(涅槃)에 드신 후 약 1세기경에 이르러 두 번에 걸친 결집에서 정리된 것을 의미한다. 이 당시 불경은 산스크리트어나 팔리어로 쓰는 페다다수(貝多羅樹: 종려나무와 비슷한 나무로 그 잎은 바탕이 곱고 빽빽하고 길다. 잎을 말려서 일정한 크기로 잘라 글쓰는데 사용한다.)의 잎을 가공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에 통칭 패엽경(貝葉經: 좁고 긴 잎에 송곳으로 글자를 새기고 기름을 바르고 구멍을 뚫어 길게 패워 경전)이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사경이라 일컫는 사경의 시작은 중국으로 불교 경전이 들어와 한역이 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범어로 기록되어진 경전이 중국으로 유입되면서 역경사
업이 활발해져서 불교가 빠른 속도로 중국전역으로 퍼졌고 이러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사경이 더욱 번성했다. (조선시대 사경연구, 김종민) 사경의 목적은 서사(書寫), 수지(受持), 독(讀), 송(誦), 위인연설(為人演說)에 근거한 불교경전의 유포, 수행, 종교적 발원, 종교적 공덕이 강하다.

3. 사경의 제작의식

사경의 제작(製作)은 인쇄술(印刷術)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부처님 말씀을 널리 알려야 하며 아울러 독송(讀誦)하기 위한 목적이 주를 이루었고 인쇄술이 발달된 이후에는 기도(祈禱)와 공덕(功德)을 목적으로 행해져 왔다. 그러나 이 모든 행위는 불사(佛事)의 일부분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歸依)하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경 제작의식에 대해서는 신라백지묵서 대방광불화엄경에 실려 있는 발원문(發願文)에 적혀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닥나무는 재배할 때 나무뿌리에 향수를 뿌리면서 나무를 키워 닥껍질을 벗겨 삶아서 종이를 뜬다. 이 때에 참여한 사람은 모두 보살계(菩薩戒)를 받고 정성껏 종이를 만들어 낸다. 그리고 경문(經文)을 필사하는 사람이나 경심(經心)을 만드는 사람이나 불보살상(佛, 菩薩像)을 그리는 사람은 보살계를 받고 대, 소변을 보거나 잠을 자고 난 뒤에나 밥을 먹은 뒤에는 반드시 향수를 사용하여 목욕을 해야만 한다.

사경할 때에는 모두 순(純)한 신정의(新淨衣), 곤수의(禪水衣), 비의(臂衣)관(冠), 천관(天冠)들로 장엄시킨 두 청의동자(靑衣童子)가 관정침(灌頂針)을 받들며 여기에 네 사람의 기악인(伎樂人)등이 함께 기악을 한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은 향수를 가는 길에 뿌리 고 또 한 사람은 꽃을 뿌리며, 한 법사는 향로를 받아고 이끌며 또 한 법사는 법폐(梵呗)를 받아들여 인도한다. 이 뒤를 여러 필사(筆師)들이 각기 향과 꽃을 받아보고 불도(佛道)를 행할 것을 염하여 경을 만드는 곳에 도착한다.

사경소에 도착하면 삼귀의(三歸 依; 佛, 法, 僧의 三寶에 歸 依 )를 하면서 세 번 반복하여 예배하고 불, 보살에게 「화엄경」등을 공양하고 자리에 올라 사경한다.

필사(筆寫)를 마치면 경심(經心)을 만들고 불, 보살상을 그려 장엄하는데 이때는 청의동자와 기악인들은 제외되나 다른 절차는 마찬가지이고 마지막으로 경심 안에 한 알의 사리를 넣는다.」 (박상국 글 사경 16p)

이 발원문에서 나타나는 사경체작은 산양의식으로 행해졌으며 경건하고 엄숙하여 장엄하게 음각 정성을 다 가울 dado 진실한 신념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4. 사경의 종류

가. 서사재료에 따른 종류
사경(寫經)에 대하여

1) 묵서경(墨書經)
묵서경은 먹으로 쓴 것으로, 일반적으로 백지(白紙)로 많이 이용하였다.

2) 금자경(金字經)
금자경은 금으로 쓴 것으로, 금은 썩지 않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불경을 신성시하는 의미로 많이 쓰였다.

3) 은자경(銀字經)
은자경은 은으로 쓴 것으로, 불경을 신성시하는 의미로 많이 쓰였다.

4) 자혈(刺血)
자혈은 혈서로 쓴 사경이다.

5) 그 외 경면주사(鏡面朱砂) 송화(松花)가루 황토(黃土) 호분(胡粉) 등도 있지만 이와 같은 나무들은 드물게 이용되었다.

 사경지로 묵서경은 일반 백지(白紙)로 많이 이용했고, 금은을 쓴 경우 전통 사경지로는 주로 감지(絹紙, 감색)
이 나는 종이를 말하며 쪽풀 같은 식물에서 채취한 염료로 물들인 것으로 자지(紫紙) 자주색 물감의 원료로는 지지(紫草)와 잇꽃이 사용된다. 자색은 가장 이상적이고 위엄을 나타내는 색이며 가장 고귀한 색으로 최상의 색으로 인식되었다. 신라백지묵서화엄경에서도 표지화와 변상도에만 사용되었다. 다지(茶紙, 찻물을 이용한 종이) 상지(橡紙, 도토리열매를 삶은 물에 담가 염색하거나 도토리나무 수액으로 물들인 것) 등을 이용했다.

나. 제본 형태에 따른 종류

1) 권자본(卷子本)

권자본은 권자장(卷子裝) 혹은 권축본(卷軸本)이라고도 한다. 두루마리 형태의 장정을 말한다. 우리나라 사경의 가장 초기의 장정법(裝幀法)으로 신라시대에서 고려시대 초기에 많이 사용한 장정법이다. 호암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신라백지묵서 대방광불화엄경이 권자본으로 되어 있다.

2) 절첩장(折帖裝)

절첩장은 병풍처럼 접어서 접으로 떨쳐지는 형태의 장정으로 책의 형태로 볼 때 가장 오래된 것이며 고려시대 후기에 많이 사용하였다. 앞뒷면에 보호하는 두터운 표지를 붙여 두첩을 만든후 아름다운 문양으로 장엄하였다.
3) 선장본(線裝本)
선장본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고서(古書)의 장정법으로 실로 오른쪽 가장자리를 꿰매는 형태의 장정법이다. 중국의 당나라부터 시작되어 송대(宋代)까지 사용되었고 우리나라의 고려 후기부터 조선시대 사경에서 많이 볼 수 있다. 그 예로 통도사(通度寺) 성보박물관(聖寶博物館)에 감주금니(紺紬金泥)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선장본(線裝本 1880년 정운원기擎雲元奇1852~1936書)이 전시되어 있다.

다. 발원자에 따른 종류

1) 국왕발원경(國王發願經)
국왕발원경은 국왕이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거나 백성의 안녕을 발원하거나 혹은 왕실의 번영을 발원하여 전문 사경승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문글씨나 표지장식이나 제본 등이 정교하고 뛰어나며 매우 호화스러운 최고의 예술품으로 제작된 것이 많다.

2) 개인발원경(個人發願經)
개인발원경은 주로 깊은 신앙심의 발현과 또는 병고 악난 소멸과 입
신앙명이나 수명장수 가정의 평안을 발원하여 전문 사경승에 의해 이
루어진 사경과 개인이 직접 필사한 사경이 있다. 가장 많이 필사한 것
은 묘법연화경이다.

3) 신앙에 의한 발원
사찰의 건립을 발원하거나 불상을 조성하거나 석탑을 세울때 등 종
교적 발원을 필사하여 불상과 탑의 복장용으로 필사한 것이 많이 발견
되었었다.

라. 2차적인 사경
판경(목판경), 금경, 석경, 와경, 동경, 목경 등이 있으며 이 유물들
은 일차적인 사경을 바탕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사경에 포
합된다. (김경호著 한국의 사경 사경의 종류 참고)

마. 문양
사경은 글씨와 함께 문양과 변상도를 결돌인 것이 많다. 문양은 연
화문, 당초문, 보상화문, 석류문, 목단문 등으로 장엄하였으며 문양에
술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사경의 표지 문양 장업에 많이 사용되
었다.

1) 연화문(蓮華紋)
불교에서는 연꽃을 참결, 순결의 상징물로 여겼는데 그것은 연꽃에
서 자라지만 오니(汚泥)에 물들지 않는 속성에 기인한다. 초탈(超脫), 보리(菩提), 정화(淨化) 등 관념으로 상징한다. 관음보살이 연꽃 위에 앉아 있고 항상 연화를 들고 있는 것은 탈속 청정무염 고도의 각성의 경계를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묘법연화경이라고 한 것은 경전의 결백미묘(潔白微妙)함을 연꽃에 비유한 것이며 관음신앙의 세계를 연화장세계라고 한 것도 연꽃의 상징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 당초문(唐草紋)
당초문은 당나라 냉중무늬란 뜻으로 덩굴이 뻗어 나간 모양을 그린 문양이다. 당초라는 용어는 원래 당풍(唐風) 이국풍(異國風)의 냉중풀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당초문양은 고대 이집트에서 발생하여 그리스에서 완성되었으며 북아프리카,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서아시아, 페르시아 등의 제국과 인도, 중국, 한국, 일본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었다. 중국에 전래되어 불교문화와 더불어 장식 문양으로 발전하여 다채롭게 사용되고 있다.

3) 보상화문(寶相華紋)
보상화문양은 연화를 모체로 하여 화관을 층층이 중첩시켜 화려한 색채와 장식성을 점기한 상상적인 꽃 무늬로 만든 문양이다. 보상화문양은 불교예술 가운데 이상화되고 예술적으로 가공된 대표적인 꽃문양으로 만다라화(曼荼羅華)라고도 한다. 보상화의 보(寶)는 진귀함을 뜻하는 의미로 쓰인다. 인도에서 생겨나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와 일본에 전해졌다.

바. 변상도(變相圖)
불교경전의 내용을 압축하여 그림으로 섬세하고 정교하게 표현한 그림으로 불교 미술의 뛰어난 예술성과 심미성을 지니고 있다.

변상도의 예로 신라백지묵서 대방광불화엄경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전 극동을 통
ставлен, 확실하게 연대가 나타나 있는 가장 오래된 종이 위에 그려진 그림이다. 국보로서 독보적인 가치는 이로 말할 수 없으며 통일신라시대 불교미술의 장점을 보여주는 호사스럽고 결정적인 유물이다. 그러나 번상도는 백지묵서보다는 주로 감지와 흑지 자지보다는 주로 묵둔 종이에 금이나 은으로 부쳐 넣어서 그 경전을 설하시던 당시의 모습(법화경 화엄경 등)이나 혹은 그 경전의 내용중 중심사상(부모은중경등)을 좁은 공간에 그려 넣어 장엄하였다. 영화롭고 장엄함을 과시하고 있으며 회화의 찬란함을 엿 볼 수 있다. 번상도는 정신적이고 심오한 것일수록 더 장엄하게 꾸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존 카터코벨지음 김유경역어 옮김 한국문화의 뿌리를 찾아 203p)

5. 사경의 역사

가. 통일신라시대

통일신라시대에는 나라와의 교류로 수많은 중국 유훈승에 의해 다양한 불교 신앙과 사상을 폭넓게 수용하였다. (박상국 글 사경 30p) 이 시대의 사경은 불교신앙의 수요로 인해속의 발달을 가져왔고 신라 특유의
불교 신앙과 사상을 확립하여 불교는 신라인의 정신적인 주체가 되었다. 경전의 보급 차원에서 행해졌던 사경은 목판인쇄술의 발달로 인쇄물로 보급되어 큰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는데, 세계 최초의 목판 인쇄물은 불국사 석가탑에서 나온 것으로 신라중기에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을 사경한 것이다. 
이렇듯 이 시기에 쓰여진 사경은 법을 전하는 전법기능보다는 수행과 서사 공덕을 위한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신라시대 사경 사업에는 사경이나 판경의 제작을 넘어 석경에 불경을 새겨 넣어 영구보존토록 했는데, 화엄경이나 법화경 및 금강경 석경
사를 경에 대하여

을 비롯하여 순금의 금강경 경판이 그것이다. 이러한 불경은 모두 사경을 기초로 하여 제작되는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사경문화는 유구한 전통 속에서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 고려시대

통일신라시대로부터 전해지던 사경이 계승되면서 다양한 발전을 하게 된다. 고려시대의 국교가 불교이므로 국왕과 귀족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화려하고 섬세한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먹으로 쓴 것보다는 금이나 은을 사용한 금자경(金字経)과 은자경(銀字経)이 성행하였다.

초기에 사찰을 중심으로 사경하였으나 국가적 사업으로 사경원(寫經院)의 건립과 사경승의 양성과 함께 충렬왕(忠烈王)이후에는 금은자 사경기법이 절정에 이르렀고 100명이 넘는 사경승이 원나라에 파견되어 사경 기술을 전해주기도 했다. 또한 사경의 공덕 개념이 국경을 초월하여 널리 유행하였다. 이러한 사실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동양의 여러 나라 가운데 가장 발달된 사경술(寫經術)의 찬란한 전통을 지니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고려시대 사경은 내용면이나 그 물량면에 있어 서도 신라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다양하고 풍부하며 신라시대의 우수한 기량과 종교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고려초기보다 고려 후기에 크게 성행하였다. 고려사는 신라의 사경에 비하여 장식적인 경향이 더욱 강하고 고가의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불경은 목판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 광선유포(廣宣流布)와 같은 사경 본래의 의미를 사라지고 더욱 화려하고 섬세하게 장엄하게 하는 경향으로 바
귀족불교는 문화의 육성을 가져왔고 이 가운데 현종 때의 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의 천의 속장경(續藏經)과 고종 때의 해인사(海印寺) 고려대장경(高麗大藏經) 간행은 세계 문화유산에서 손꼽히는 문화유산이다.

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은 현종 2년 1011년 판각을 시작하여 1087년 완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대장경으로 거란족의 침입이 있자 이를 계기로 야만족의 침입에 대하여 문화국의 입지(立地)를 세우고 부처님의 힘으로 국난을 타개하고자 하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판각한 것이다. 국내에 전래되는 초조대장경은 약 200여 권에 이르고 있다. 이 것은 국보 246호인 대보적경이다. 송성문 씨 소장.

해인사(海印寺) 고려대장경판은 고려 고종(高宗) 때 대장도감(大藏都監)에서 판각한 대장경판으로 초조대장경판이 몽고군의 침입으로 불타서 1237년~1251년 다시 만든 것이다. 이 대장경은 1232년에 강화도로 도읍(都邑)을 옮기고 몽고의 침입에 대항하면서 판각한 고려인의 호국 의지가 모인 문화유산이다. 특히 당시 개태사(開泰寺) 승통(僧統)으로 있던 수기(守其)에 의해서 북송판(北宋官版)과 거란판 및 우리나라 초조대장경을 대교(對校)하여 한역 대장경 역사상 가장 완벽하고
정확한 대장경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추사김정희(秋史金正喜)가 ‘非肉身之筆 及仙人之筆’라고 최고의 찬사를 보낸 고려대장경이다.

서체나 판각술에 있어서도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의 뛰어난 기록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더하다. 이 대장경은 흔히 제조대장경(再雕大藏經)이라 하여 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을 복각한 것처럼 알려져 있으나 사실은 다시 필사하여 새긴 것이다. 그러므로 이 대장경은 고려시대 최대의 인쇄용 사경 작업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대장경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나라를 지키려던 호국의 의지가 국가의 지원과 스님들의 발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대장경판의 제작으로 말미암아 인쇄 기술의 발달은 물론이고 사경을 주로 한 경전 신앙 의식이 성행할 수 있었다.

다. 조선시대

조선시대 초기의 불교는 태조 등 몇몇 임금과 대비나 왕비 등 황실에서 막은 이어왔으나 배불이라는 정치적 임지 속에서 종파의 통폐합
과 사찰의 폐지와 더불어 재산을 몰수하는 등 국교가 불교였던 고려시대 불교제의 면목은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시대의 사경은 고려시대에 비해 양이 좁아, 절이 있어서 멀어질 수 밖에 없었다.(박상국 글 사경 p76) 선비정신을 중하게 여기는 조선시대는 공자의 가르침인 유교사회에서의 숭유배불이라는 사상을 중심으로 특수한 문화적 배경을 형성해 갔으므로 이러한 현실속에서 마련된 불교의 자구책은 효에 대한 불교적 가치관을 부각시키게 되었고 이러한 가치관은 불교의 유포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부모은중경과 같은 효경(孝經)이 불경으로 쓰여지게 되었다. 부모를 위해 제작한 내소사(來蘇寺) 소장의 백지묵서묘법연화경 (1415년 전주박물관), 화엄경 감주금니화엄경1질(1880년 통도사 박물관)이 조선시대 말기의 작품으로 전해진다.(장충식지음 한국사경연구 13p) 그 서체나 장정면(裝幀面)에 있어서 한국사경사의 대미(大尾)를 장식하는 뛰어난 작품이다. 조선시대의 사경은 고려시대에 비해 그 체재가 거대해졌으나 작품의 질은 멀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변상이 생략되는 등 간략화 되는 경향이 두렷하다. 공덕경의 경향에 힘입어 금은니의 사경이 제작 되기도 했다. 동시에 묵서경도 유행하
화시대 사경의 이상성은 부모 등 망자(亡者)에 대한 추복(追福)의 성격이 많다. (한국사경연구 장충식 작, p272) 조선시대 사경의 가장 두드러진 성격은 부모 등 망자(亡者)에 대한 추복(追福)의 성격이 많다. 

사경의 서체는 주로 해서(楷書)이다. 해서는 한말(漢末)에서부터 위진남북조(魏晉南北朝)에 성행했는데 북위(北魏)는 융장하고 거친 기세가 있고 획이 굵고 강하지만 후기에 와서는 부드러움이 가미된다. 이 후, 윤희지(王羲之)의 서풍(書風)을 흡수하여 당해(唐楷)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당나라는 서예를 애호(愛好)하거나 필체가 뛰어난 사람을 모아 학습시켰고 구양순(歐陽詢), 우세남(虞世南), 저수량(褚遂良)을 일컬는 초당삼대가(初唐三大家)를 기점으로 남북조 시대의 부정형은 사라지고 가지런한 정형의 모습으로 정돈 되었다.
사경서체에 가장 영향을 미친 서예가는 동진(東晉)의 왕희지(王羲之), 남조(南朝)의 사령운(謝靈運), 수(隨)의 지영(智永), 당(唐)의 구양순, 우세남, 저수량, 유공권(柳公權) 등을 꼽을 수 있다. 사경승들은 이들의 서법(書法)을 연마한 후에 뛰어난 예술성을 지닌 서체를 탄생시켰던 것이다.

통일신라 초기에 당나라와의 교류가 빈번하여 유학생들과 승려들이 왕래하였고 당나라의 각종문물과 제도가 수입되었다. 서법(書法)에 있어서도 왕희지(王羲之), 구양순(歐陽詢), 안진경(顏眞卿) 등의 서법이 전해져 오면서 사경의 필법에도 함께 쓰이게 되었다. 또한 그대로 이어가나 점차 개성이 강한 서체로 바뀌고 구양순체를 기본으로 하는 여유있고 넉넉한 자유로운 결구를 선 보이기도 했다. 신라백지묵서 대방광불화엄경(國保196호)의 서체는 구양순체를 기본으로 하여 왕희지체와 북위체가 섞여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 사경의 서체로
사는 구양순체를 기본으로 하여 북위체나 왕희지체가 혼용되어 사용 되었으며 이런 서체속에서 안진경제를 비롯한 저수량, 우세남체와 같은 서체들도 글자나 획에서 혼용되었다. 고려말기에에는 엽정함을 기본으로 하는 구양순체에다 송설체((松雪趙孟頫 1254~1312 원나라 초기에 활동했던 당시최고의 서예가이자 화가 및 문학가로 당대의 서예계는 물론 명(明)과 청(淸)을 비롯한 한국과 일본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도 혼용되었다.

조선시대 사경서체는 구양순체를 기본으로 하면서 송설체가 섞인 형태이다. 사경원에서 사경전문 서자(書者)에 의해 사경이 제작되었던 고려시대와는 달리 기록에 의하면 해서에 능한 당대의 명필들이 사경제작에 직접 참여했고 또는 고려말기의 사경원에서 일했던 서자에 의
해 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좀 더 개인적인 자유분방한 서체로도 쓰여졌다. 또한 구양순체의 자형은 그대로 두고 획의 운필은 송설체로 쓰으므로써 조선시대의 사경서체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김종민의 력말 선초 사경 서체연구, 김종민의 조선시대 사경연구 참고)

Ⅲ. 맺음말

지금까지 사경(寫經)의 기원(起源) 의의(意義) 제작의식(製作義式) 종류(種類) 역사(歷史)와 사경에 주로 쓰인 서체(書體) 등을 간략히 살펴 보았다. 사경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단연코 글씨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옮겨 적으며 수행과 기도를 하는 정신적인 측면, 즉 우리 서예(書藝)가 지향하고 있는 “정신을 존중하고 품위있는 인격 형성을 목표로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라백지묵서(新羅白紙墨書)대방광불화엄경(大方光佛華嚴經) 발원문(發願文)의 경전을 서사(書寫)하기 전 갖추어야 할 제작의식(製作義式)에서 살펴 보았듯이 사경지를 만드는 원재료인 닥나무를 재배할 때부터 정성들어 키워 온 신라인의 정성과 그렇게 만들어진 종이 위에 경(經)을 쓰기 위한 그 모든 준비 과정에 속한 많은 이의 지극한 정성을 볼 때 온 마음을 집중하여 성인의 좋은 말씀을 정성껏 쓰 내려가는 사경(寫經)이 오늘날 우리 바쁜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고 싶신의 수련을 할 수 있는 좋은 역할을 충실히 해 넬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성인(聖人)의 좋은 말씀을 서사(書寫)하는 일은 삶의
활력소이자 윌트리히 되어 인생의 참된 가치를 일깨우며 밝고 아름다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본다.

세월이 흘러 갈수록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조상들의 위대한 문화유산이 더욱 빛나 나득이 값지고 빛나는 앞선시대의 기록을 모범삼아 전통예술품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는 현대에도 사경이 서예와 더불어 전통문화예술에 바탕을 두고 새로운 시대의 현대사경 문화 예술로 계승발전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문헌

- 고려사경의 연구 권희경 쓴 미진사 1986년
- 사경 박상국 글 사진 대원사 1990년
- 한국의 사경 김경호 쓴 한국사경연구회 2006년
- 한국사경 연구 장충식 지음 동국대학교출판부 2007년
- 문양으로 읽어보는 태학원 우리나라 단청 I, II 임영주·전한효 편저 2007년
- 전통 문양 글 허균 사진 유남해 1995년
- 한국문화의 뿌리를 찾아 학고재 1999년
- 불교미술사학 존 카터 코벨지음 김유경 역음 제47집
- 불교미술사학 북문박물관 불교미술사학회 2006년
- 불교미술사학 범하스님 화갑기념 특별논문집 통도사 성보박물관 불교미술사학회 2007년
- 한국불교학 제47집 한국불교학회 2007년
- 《硯末硯初》된 경서에 관한 연구 김종민 2003년
- 조선시대 사경연구 김종민 2007년
- 조선시대 쓴 경서장 충석 미술사학연구 204 1994년